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강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2. 고난받은 주를 보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종소리를 보고 들으며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나이가 자란다는데 우리 영혼의 몸피는 얼마나 자랐는지 돌아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며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방비가 없어 냉방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 먹을 것이 없이 허기진 우리의 이웃들의 가슴 시린 삶의 자리를 향해 다만 한 걸음이라도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머무실 곳이 없어 말구유에 오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이 머무실 만한 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1:12-14 인도자

♠ 교 독 문 75. 성서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유경순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36. 주 예수 크신 사랑 다함께

성경봉독 I. 요3:1-8 인도자

II. 느8:5-12 송동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년 월 배우니? 김재흥 목사

II. 책을 펼 때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신의 찬송 513.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다함께
- 헌금봉헌<찬양: 윤석철 장로>..... 다함께
-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욕망의 허장성세를 벗어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본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6년도 당회	성서의 평화(12) 인도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이순정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한상익 장로	인도자 문인옥 권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정영선	유혜경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박효선	강순배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자만심에 관하여

일곱 번째로 대적해야 할 마귀는 자만심입니다. 그것은 교묘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정념입니다. 다른 정념들의 도발은 쉽게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원수를 인식하면, 그것에 반박하고 기도함으로써 즉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말하는 방법, 우리의 말과 침묵, 일, 철야와 금식, 기도와 독서, 고요와 인내 등—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만심은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면, 남루한 옷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그에게 아첨하지 못하면, 치욕처럼 보이는 일을 겪게 함으로써 우쭐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게 하는 데 실패하면, 침묵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여 자신이 고요(stillness)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그를 유혹하지 못하면,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도록 유혹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 모든 행동이 이 악한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를 자극하여 스스로 사제라고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케테스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어느 원로가 한 형제의 수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로는 형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밖에 서서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원로는 형제가 자만심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부제에 임명하고 세례문답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로는 문을 열고 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는 원로에게 인사를 하고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네가 세례문답자들을 해산시키는 일을 마칠 무렵에 도착했다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는 원로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이 망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싸움에 참여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 이 짐승을 정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진친 저의의 뼈를 하나님이 흡으심이라”(시53:5). 그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구해야 하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생각을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만심의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에 관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할 여덟 번째 마귀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어떤 마귀보다 더 사납고 사악한 마귀입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거룩함의 산에 거의 도착한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몸의 한 부분만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듯이, 교만은 영혼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다른 정념들은 각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의 덕을 공격하여 정복하려 하며, 영혼을 부분적으로만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영혼을 완전히 어렵게 하고 완전한 파멸로 이끕니다.

이것의 의미를 보다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탐식(gluttony)은 극기를 파괴하고, 부정(unchastity)은 중용을 파괴하고, 탐욕은 자발적인 가난을 파괴하고, 노염은 온유함을 파괴하며,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악은 그에 상응하는 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불쌍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마치 큰 도시를 정복한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영혼의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고 모든 덕과 모든 지혜로 치장되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시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겼습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속-존 카시안)

■ 마/음/으/조/워/는/글

눈물 한방울이 되어

두 눈을 감고서야
그들이 둘러싼 모든 벽들이
종잇장보다 훨씬 얇다는 것을/알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서야
그들이 움켜쥔 모든 무기들이
숨사탕보다 쉽게 녹아버린다는 것을/알았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서야
그들이 억누르는 힘과 힘의 어깨들이
바람보다 빨리 꺼져간다는 것을/알았습니다.

아, 울먹이는 기도 소리가
모든 벽들과 모든 무기들과
억누르는 힘과 힘의 어깨들을 쓰다듬으며
터질듯한 투명함으로 떨어진다는 것을/알았습니다.

이 아침/온몸으로 깨어지면서도
그림자 하나 소리 하나 남기지 않는
눈물 한방울이 되어.(김창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최희영 양재성 임미심 한완식 임정자 강인식
 김정숙 조관행 홍선희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신윤정 김근종 정옥영
 백요현 김용길 최영혜 윤수진 박경원 윤미경 서원금 권채영 김희진
 박홍재 김지윤 김지호 김민주 노용래 김순복 전영웅 고광송 이춘희
 임원민 임수연 임고운 권미숙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정미경 최윤희 문금석 김종문 지명주 김정섭 김미순
 서정순 전영규 김경수 송의섭 이경남 노미향 권미정 이증자 김창경
 박범희 박미영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지호 최숙화 김정길 오진훈 노순옥 김애경 박영균
 최호정 이현순 한선희 임창선 맹은선 이소순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준우 김중수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장영숙 박범희 박미영 김주희 (누계- 14,7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조순덕	연 합 속 회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필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김금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최종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서주일** : 오늘은 한국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서 든든한 삶이 시작됩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당회** : 오늘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4. **성경학당 종강** :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를 함께 읽어가던 성경 학당 가을 학기를 14일(목)에 마칩니다.
5. **연합속회** : 12월 15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속장·인도자들께서는 2006년도 속회 개근자들을 파악해 보고해 주십시오.
예배인도 - 갈라디아속 식사준비 - 가버나움속
6. **선교회장** : 새롭게 선출된 각 선교회 회장, 인도자 모임을 다음 주일(17일) 오후 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갖겠습니다.
7. **신앙실천** : 고마운 인연들을 기억하며 정 깊은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배소 속

* 헌화 : 문금석 권사 (시모님 23주기, 남편 4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